

전 남

‘강진 명품상가 복합타운’ 조성 논의회서 부결

상인·주민 “재래시장 죽이기냐” 반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진을 5일 시장을 명품 복합상가로 탈바꿈시키려는 강진군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강진군이 종합 정비사업으로 계획했던 강진을 재래시장 ‘강진 명품상가 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지난 12일 강진군의회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강진을 시장상인회 상인들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은 당초 지난 2010년 농림식품부 주관의 ‘강진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 선정돼 2011~2015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2.5km 개설 ▲주차장 4개소 조성 ▲간판

정비 ▲전선 지중화 ▲공원 조성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난해 강진을 영랑로(620m) 지중화사업만 추진하고 전면 중단됐다.

강진읍 군수는 취임 이후 보류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가발전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전통적 상권 중심지역이라 여겨지는 강진읍 5일 시장 인근 군내버스 공용정류장 주변 일대 8917㎡를 ‘강진명품상가 복합타운’ 사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군은 이곳에 사업비 91억(국비 60억·군비 31억원)을 들여 한정식 체험

관, 축협 한우판매장, 도자기 판매장, 향토작가 예술작품 전시관, 공원 바닥분수,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기본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강진군의회에 신청했으나, 지난 12일 특별위원회 의원간담회에서 일부 군의원들이 ‘과다한 사업비와 불확실한 사업효과’를 이유로 반대하며 표결로 이어지면서 동수(찬성 4명·반대 4명)가 나와 부결됐다.

박이세(64) 시장상인회장은 “정치인이면 하나같이 재래시장을 살리기를 외치고, 정부에서도 대형 마트가

지도 규제 시키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독 강진에서만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반대해서야 말이 되겠느냐”며 “앞으로 상가주민을 대상으로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최형택 기획홍보 실장은 “이번 사업은 우선의 편의시설보다 예산을 한곳에 집중해서 강진을 재래시장 상권을 살리자는 목적이며, 인근 장흥군의 성공 사례를 보더라도 중요한 사업이다”며 “다음 정례회 일정에 군의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싸목싸목 걸으며 느림의 미학 체험하세요”

담양 오방길 걷기대회

24일 창평 슬로시티서

담양 오방길 걷기대회가 오는 24일 담양군 창평면 슬로시티 일원에서 열린다.

담양 오방길사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걷기대회는 ‘걷기를 통해 나를 찾는 힐링투어’를 주제로 ‘오방길’ 4코스(싸목싸목길)를 걷는다.

‘싸목싸목길’은 창평면 삼지내 마을을 중심으로 논길과 편백나무 숲길을 따라 남극루와 상월정을 돌아 다시 삼지내 마을로 돌아오는 7.2km 코스로 옛스런 돌담길과 한적한 오솔길, 치유의 편백나무 숲 등 ‘느림의 미학’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



이날 걷기 행사와 함께 달팽이 시장 구경, 슬로시티 풍물단 공연, 추억의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담양 오방길사랑회 관계자는 “이번 ‘오방길 걷기 투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경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

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영산강 발원지 용소가를 길을 비롯해 슬로시티 창평권역, 담양하천 수지권역, 가사문화권역, 담양읍 주변권역 등 5곳에 ‘담양 오방길’을 조성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신안 비금도에 ‘천일염 박물관’

1947년 민간차원에서 개발한 최초의 천일염전이 있는 신안군 비금도에 ‘천일염 박물관’이 들어선다.

신안군은 비금도 천일염전의 형성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학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비금도 2호 염전(대동염전) 인근 1만여㎡에 10억원을 들여 ‘천일염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은 부지 매입을 마쳤으며 오는 2015년까지 체험장과 전시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은 천일염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천일염전 형성 과정 등에 대한 학술조사를 목포대 도서관학원구에 의뢰했다. 연구원은 각종 문헌기록과 관련자 구술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비금도 천일염전의 형성과정을 연구·조사했다.

소금 생산지로 다양한 인문환경을 지닌 비금도는 가마솥에 바닷물을 데워 소금을 생산하는 전통방식인 ‘화렵’(火鑿)이 일제 강점기까지 성행한 지역이다.

일제시대 평안남도 일대의 염전에 일하려 간 비금도 사람들이 귀향해 천일염전 조성과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1947년 공복 이후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천일염전(1호 염전)을 개발했다. 한편 신안군 중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축조된 석조 소금창고를 리모델링해 전국 최초로 2007년 ‘소금 박물관’을 개관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tlee@



새콤달콤한 담양 딸기 출하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시설하우스에서 딸기 수확이 본격 시작됐다. 담양딸기는 국내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70호) 등록과 국제 표준규격 ISO 9001(품질경영)과 ISO14001(환경경영) 동시 인증을 받았다.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시설하우스에서 딸기 수확이 본격 시작됐다. 담양딸기는 국내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70호) 등록과 국제 표준규격 ISO 9001(품질경영)과 ISO14001(환경경영) 동시 인증을 받았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진도군 상수도 K-water에 20년간 위탁

진도군이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 상수도를 20년간 위탁한다.

진도군과 K-water는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협약에 따라 K-water는 노후관로 교체와 정수장 운영, 계량기 점검 등 상수도 사업을 20년간 맡는다.

K-water는 노후관 교체, 최신 누수탐사기법을 도입해 현재 47.5%인 유

수율(有收率)을 2017년까지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최첨단 IT 기술과 집속한 감시·제어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 등 선진화된 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위탁 운영으로 20년간 159억~16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수도 시설 개선에 소요될 400억원을 K-water가 선 투자함에 따라 그동안 상수도사업의 부족한 재정 충당

을 위해 지출한 예산을 주민 복지과 지역개발 등 다른 사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진도 수돗물 보급률은 92%로 높지만 재정부족으로 수도시설을 제때 교체하지 못해 누수율이 높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화순군 ‘맞춤형 생활서비스’ 최고

전국 군단위 1위

화순군이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 등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화순군은 “최근 한국 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3회 지역경쟁력지수(RCI) 평가’에서 2010년 평가 때에 비해 종합순위가 34계단이나 상승, 전국 161개 시·군중 상위권 도위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생활서비



스’ 부문 전국 군 단위 1위, 시·군 종합 4위를 차지해 지표상 군단위 지역중 가장 생활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제2회 평가때 종합순위 50위에도 들지 못했던 화순군은 이번 평가에서 생활서비스 부문 지표 순위가 수직 상승하면서 RCI 평가결과와 종합 순위권으로 급부상

했다. 군은 그동안 군정 역점시책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지난해부터 노인층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확대, 장수수당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홍이식(사진) 군수는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지역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노인층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흥 바이오산단에 축산물 유통센터

가나안푸드, 330억 들여 내년 건립

전남도가 특화산업단지 지정해 조성중인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에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가 들어선다.

장흥군과 전남도, ㈜가나안푸드는 지난 20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 이명홍 장흥군수, 고안복 ㈜가나안푸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맺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가나안푸드는

2013년까지 사업비 330억원을 투자해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3만3000㎡ 부지에 시설면적 1만㎡ 규모로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고용 규모는 200여명이다.

㈜가나안푸드는 전국 23개의 판매장을 가진 축산물 가공 전문기업으로, 장흥 공장 가동시 1일 돼지 2000마리, 소 150마리의 도축과 가공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군은 이번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

립으로 지역 축산업 환경의 구조, 인력, 자본 등에서 선진화된 가공·유통 인프라를 갖춘 효율적 구조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식품·바이오 기업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준영 도지사는 “친환경 축산 가공·유통시설은 전남의 여건에 부합하고 꼭 필요한 분야인 만큼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흥=김영희기자·중부채본부장 kykim@

Advertisement for the 181st JCC Council Meeting (2012.11.16-12.18) with a detailed agenda table and background image of a council chamber.